

경제

광주·전남 비은행권 대출 전국 평균 2배

연간 이자만 9천억씩 나간다

1월 중 가계대출 21조원 ... 은행권 대출 '별따기'

광주·전남지역 가계대출 가운데 새마을 금고,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높아져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을 넘어선 2위에 포함돼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중 광주와 전남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 대출잔액은 각각 11조 7천260억원, 10조370억원으로 총 21조 7천630억원이다. 이를 광주·전남 총인구(334만2천명)로 나누면 개인당 651만2천원 씩을 지고 있는 셈

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가계의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 상호금융, 신협 및 우체국) 대출비중은 각각 44%(5조1천230억원), 59%(5조9천470억)에 달해 전국 평균(26%)을 크게 웃돌았다.

광주·전남 가계의 비은행권 대출 잔액 11조7천260억원을 지난해 비은행권 일반 대출금리(8.03%)로 환산하면 연간 이자만 9천416억원에 달한다. 같은 금액을 은행권 대출금리(5.65%)로 계산하면 6천625억원이다. 결국 서민들은 은행권 대출에 비해 2천790여억원의 이자를 더 물고 있다.

특히 전남의 예금은행 대출액은 2008년 1월 말 4조5천100억원에서 올 1월 4조89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은행권 대출은 무려 1조 1천390억원 늘었다.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과 함께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을 앞선 지자체로 분류됐다.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한 원인은 대출 심사기준이 까다로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겹치기 대출이 많은 것으로 추정돼 서민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음을 방증했다. 1월 현재 광주지역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3조8천110억원, 제2금융권은 3조370억원, 전남의 은행권 주

택대출잔액은 1조4천21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2조1천970억원이었다. 제1금융권에 1순위 주택담보를 잡힌 후 또 다시 제2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중복 대출이 많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은행권이 신용도가 높은 가계에 대한 대출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은행권이 대출을 욕하기 때문에 가계의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체적으로 광주·전남 가계대출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치상의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통시장 활성화 약속

광주시교육청은 14일 분청 대회의실에서 안순일 시 교육감과 관내 19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회장 김영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 교육청은 산하 기관과 학교 등에서 물품이나 음식재료 등을 구입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시상품도 전통시장 상품권을 사용키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한국 신용등급 A2 → A1 상향

무디스는 14일 우리나라 국제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전격 상향조정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인 것으로 유지했다.

무디스는 이날 싱가포르발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 정부의 신속한 대응, 건전 재정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 개선 등을 이유로 이같이 국가 신용등급을 올렸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2007년 7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는 1997년 이후 최고 등급으로 한국 경제가 사실상 외환위기에 이진 수준으로 올라갔음을 의미한다.

무디스는 한국 외화채권 신용등급도 Aa3에서 Aa2로 상향조정했으며, 외화예금 등급은 A2에서 A1으로 올렸다. 반면 원화 채권과 은행예금 등급은 Aa1으로 유지했다. /연합뉴스

교인 실타래 풀리나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안 부결 5일만에 재협상

금호타이어 노사가 우려곡절 끝에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9일 입단한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닷새만이다.

1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제22차 본교섭에 들어갔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만큼 재협상을 통해 해고 문제와 임금 삭감 폭 등 이견을 최대한 좁혀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은 노조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를 위해 노조는 지난 12일 대의원 85명 가운데 49명으로부터 '교섭 재개 동의서'의 서명을 받았다.

과반수 이상 대의원이 재협상을 요구함에 따라 집행부 총사퇴를 주장하며 노조 사무실을 점거했던 일부 강경파도 점거를 풀고 사무실에서 철수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재협상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의안이 부결되자 예고된 해고가 현실화됐고, 채권단의 긴급 자금 지원 철회, 부결운동은 주도한 강경파들의 대안 부재가 드러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현 집행부를 통한 재협상 요구가 대두했다는 분석이다. 노사가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다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노사 모두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협상에선 그동안 잠점이었던 임금 삭감 문제와 회사측이 해고한 191명에 대한 거취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vpark@kwangju.co.kr

대우일렉 매각 우선 협상자 선정 우리銀, 아랍계 가진 그룹

우리은행은 14일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 관련, 아랍계 가진 업체인 엔텍그룹을 최종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는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채권단은 최종 우선협상대상자인 엔텍그룹과 조속히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상세실사를 거쳐 빠르면 7월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은 채권단이 수차례 시도했지만, 최종 협상과정에서 매각 대금과 조건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 번이나 무산됐다. /연합뉴스

'미소금융' 수도권 편중 심각

대출금 32억 60% 차지 ... 호남권은 3% 그쳐

저신용자·저소득층의 자활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사업의 지역지점수와 대출금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5개 미소금융지점은 지난 12일 현재 743명에게 5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대출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434건으로 전체의 59.0%, 대출금액은 32억5천만 원으로 60.7%를 차지했다. 영남도 134건(18.0%)에 7억 원(13.8%)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과 영남의 대출건수는 568건으로 전체의 76.4%, 대출금액은 약 40억 원으로 7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호남의 대출건수는 26건

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했고, 대출금액도 1억8천500만 원으로 3.4%에 그쳤다.

개설 지점수도 호남권은 광주·전남을 통틀어 4곳 뿐이며 전북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수도권 지점수는 16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학용 의원은 "서민들을 돕기 위한 금융사업의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 지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 기업 유동부채 117% 급증

빚 상환 능력 떨어져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들의 단기 채무 지급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의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14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유동비율을 산출한 결과 54.11%로 전년 말(71.99%)보다 17.87% 감소했다.

유동자산은 5조5천43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63.17% 증가했고 유동부채는 10조2천448억원으로 117.07%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지난해 경기침체로 원자재 외상매입을 늘린 데다 단기성 차입금을 많이 끌어다 쓴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동비율 상위는 화천기공(334.88%), 부국철강(293.20%), 광주신세계(273.11%), 동아에스텍(245.42%), DSR제강(170.05%) 등의 순이고 유동비율 증가 상위사는 부국철강(118.77%P), 동아에스텍(73.06%P), 화천기공(72.23%P), 광주신세계(66.30%P), DSR제강(51.48%P)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고용시장 '춘풍'?

신규 취업자수 66만명 ... 실업률 소폭 하락

광주지역 신규 취업자가 늘면서 실업률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하락했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3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취업자수는 66만6천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3천명(6.9%)이 증가했다.

가사나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46만 7천명으로 전년보다 2만명(4.0%)이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사무 종사자가 1만2천명(11.0%)이 줄었지만 전문·기술·행정관리자(8천명·5.5%), 서비스·판매종사자(1만6천명·10.4%), 농

림·어업 종사자(3천명·24.3%),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 종사자(2만 8000명·13.6%)는 증가했다. 실업자는 2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5천명(14.5%)이 줄어 실업률은 0.9%포인트 하락한 4.0%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의 경우 취업자가 88만 5천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같았으며 고용률은 62.1%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1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명(13.0%)이 감소해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한 1.9%를 기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양제철 1분기 순익 6천억

전년보다 1200% 급증

광양제철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천200%대의 비약적인 증가에 힘입어 6천억원대를 기록했다.

14일 광양제철에 따르면 1분기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강생산량은

461만7천으로 전년 동기대비 57.1%, 매출액은 3조990억원으로 10.2%가 각각 늘었다. 또 영업이익은 6천800억원으로 871.2%가 증가했으며, 특히 순이익은 6천650억원으로 1천288.2%의 기록적인 신장세를 나타냈다. /동부취재본부=박정욱기자 pyj4079@

Table with financial data: 코스피지수 1,735.33 (+24.74), 코스닥지수 509.69 (+3.16), 금리 (국고채 3년) 3.87% (+0.04), 원·달러 환율 1,112.20원 (-11.70). Includes a note: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TEL)011-602-253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TEL)011-609-5221. 토지매매, 건물매매, 임대보증금, 월세, 매매금액.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매매, ▶매립동 중공업지역, ▶광복동 도로변 단지 매매.

부동산경매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